

2017. 02. 20. ~ 2017. 02. 26. 주간

125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품목별 가격동향 및 전망
- 양파 재배면적, 가격동향 및 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영광, 완숙토마토 일본 수출 길에 오른다
- 국산 신선 배·토마토, 중남미(브라질·페루) 수출 길 열려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시설재배 문제해충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법 개발
- 과수원 지금부터 나무 심으세요

정책동향

-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확정
- 쌀 변동직불금 사상 최다

사업신청 및 홍보

- 맛좋은 우리 딸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3월 2일은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10~13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과 비슷하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품목별 가격동향 및 전망 (2017. 02. 21.~ 02. 27.)
- ▶ 양과 재배면적, 가격동향 및 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영광, 완속토마토 일본 수출 길에 오른다
- ▶ 국산 신선 배·토마토, 중남미(브라질·페루) 수출 길 열려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남부지역 패션프루트 무가온 하우스 주당 적정 착과량 조절
- ▶ 빵잎과 상백피 이용 건강기능성차 제조
- ▶ NB와 PB콩의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수취가격 비교
- ▶ 개똥죽 정유수율 및 생산성이 우수한 수확시기

- ▶ 맥주의 풍미를 한껏 올려줄 우리쌀 찾았다
- ▶ 영경귀·흰민들레 알코올성 간 손상과 위염 완화 한다
- ▶ 장 건강 돕는 발효 소시지 나왔다
- ▶ 시설재배 문제해충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법 개발
- ▶ 과수원 지금부터 나무 심으세요
- ▶ 마늘·양파 밭,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세요
- ▶ 봄 환절기 시설채소 곰팡이병 주의하세요

6. 정책 동향 30

- ▶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확정
- ▶ 쌀 변동직불금 사상 최다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에 589억 지원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여수시, 농약사용 유의하세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로 영농철 준비
- ▶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딸기』와 달콤한 썸 타실래요
- ▶ 곡성군, 과수재배 시작은 전정으로부터...
- ▶ 고흥군, 6차산업 인증경영체 발굴 본격화
- ▶ 보성군,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군비 46억원 지원
- ▶ 강진군, 딸기 전문 세미나로 명품화 담금질
- ▶ 해남군, 우량 못자리 상토 공급으로 풍년농사 기원
- ▶ 장성군, 『인삼쌈채』 장성 대표 특산물로 키우자
- ▶ 진도군, 쌀 적정생산을 위한 타 작물재배 추진

8. 해외 농업정보 43

- ▶ 캐나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아프리카 농촌 개발 모델로 확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2. 2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풍부한 국제 공급여건이 지속되며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주간 수출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소폭 상승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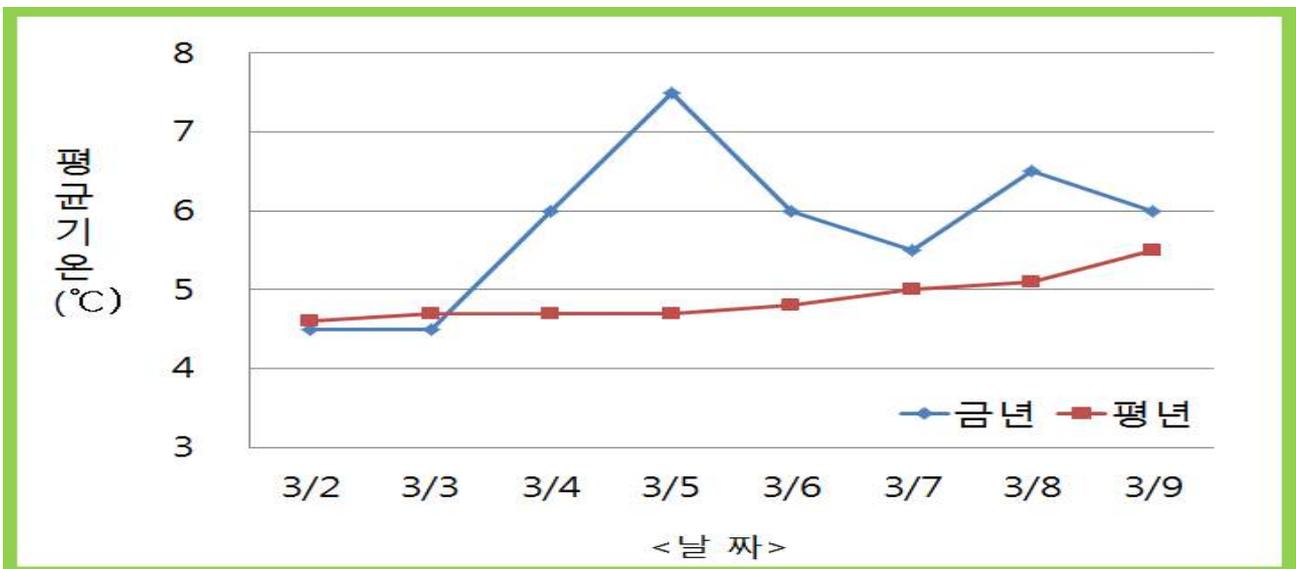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 ▶ 맛좋은 우리 딸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 개구리가 깨는 경칩(驚蟄), 24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3월 2일 ~ 3월 9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5.8℃ (평년대비 0.9℃ 높음)
- 최고기온 : 10.8℃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0.9℃ (평년대비 0.7℃ 높음)
- 강수량 : 1.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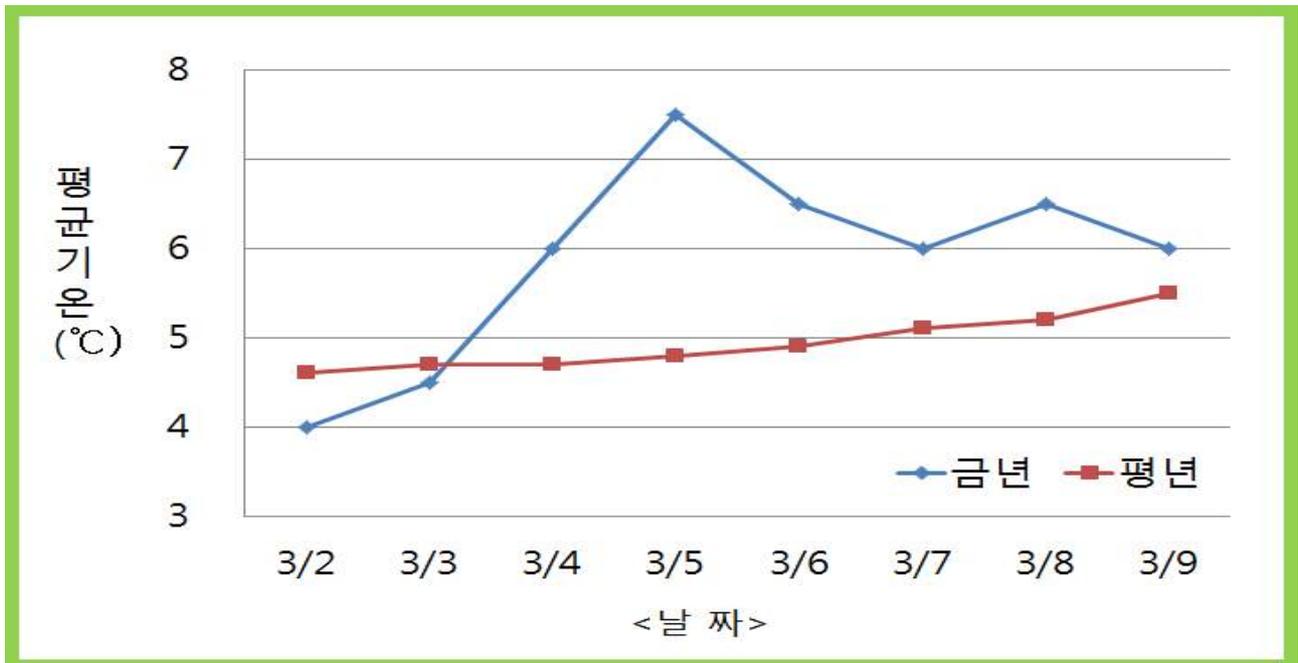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8	4.9	0.9	10.8	10.5	0.2	0.9	0.2	0.7	1.8
3. 02.(목)	4.5	4.6	-0.1	6.0	10.1	-4.1	3.0	0.0	3.0	1.9
3. 03.(금)	4.5	4.7	-0.2	11.0	10.2	0.8	-2.0	0.0	-2.0	1.8
3. 04.(토)	6.0	4.7	1.3	13.0	10.3	2.7	-1.0	-0.1	-0.9	1.9
3. 05.(일)	7.5	4.7	2.8	13.0	10.2	2.8	2.0	0.1	1.9	2.0
3. 06.(월)	6.0	4.8	1.2	11.0	10.4	0.6	1.0	0.1	0.9	2.0
3. 07.(화)	5.5	5.0	0.5	10.0	10.6	-0.6	1.0	0.3	0.7	1.6
3. 08.(수)	6.5	5.1	1.4	11.0	10.9	0.1	2.0	0.4	1.6	1.6
3. 09.(목)	6.0	5.5	0.5	11.0	11.4	-0.4	1.0	0.7	0.3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2일 ~ 3월 9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5.9℃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10.1℃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1.6℃ (평년대비 0.5℃ 높음)
- 강수량 : 1.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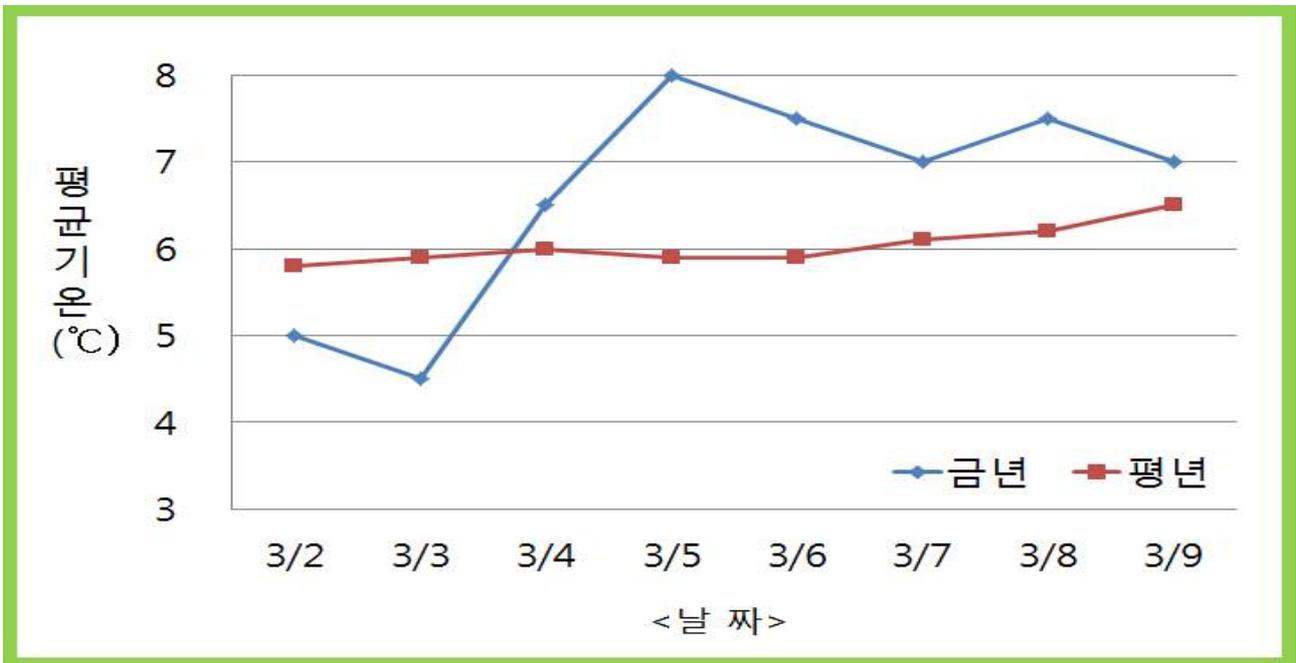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9	4.9	1.6	10.1	10.0	0.2	1.6	1.1	0.5	1.8
3. 02.(목)	4.0	4.6	5.0	5.0	9.6	-4.6	3.0	0.9	2.1	1.4
3. 03.(금)	4.5	4.7	-0.2	10.0	9.7	0.3	-1.0	1.0	-2.0	1.5
3. 04.(토)	6.0	4.7	1.3	12.0	9.8	2.2	0.0	1.0	-1.0	1.7
3. 05.(일)	7.5	4.8	2.7	12.0	9.7	2.3	3.0	1.0	2.0	2.1
3. 06.(월)	6.5	4.9	1.6	10.0	9.9	0.1	3.0	1.0	2.0	2.1
3. 07.(화)	6.0	5.1	0.9	10.0	10.1	-0.1	2.0	1.2	0.8	1.7
3. 08.(수)	6.5	5.2	1.3	11.0	10.3	0.7	2.0	1.3	0.7	1.8
3. 09.(목)	6.0	5.5	0.5	11.0	10.6	0.4	1.0	1.5	-0.5	1.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2일 ~ 3월 9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6.6°C (평년대비 0.6°C 높음)
- 최고기온 : 10.9°C (평년대비 0.6°C 높음)
- 최저기온 : 2.4°C (평년대비 0.2°C 낮음)
- 강수량 : 2.1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C)			최고기온 (°C)			최저기온 (°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6.6	6.0	0.6	10.9	10.3	0.6	2.4	2.5	-0.2	2.1
3. 02.(목)	5.0	5.8	-0.8	7.0	9.8	-2.8	3.0	2.3	0.7	1.8
3. 03.(금)	4.5	5.9	-1.4	10.0	10.1	-0.1	-1.0	2.4	-3.4	1.7
3. 04.(토)	6.5	6.0	0.5	12.0	10.4	1.6	1.0	2.5	-1.5	1.8
3. 05.(일)	8.0	5.9	2.1	12.0	10.2	1.8	4.0	2.4	1.6	2.5
3. 06.(월)	7.5	5.9	1.6	11.0	10.3	0.7	4.0	2.4	1.6	2.6
3. 07.(화)	7.0	6.1	0.9	11.0	10.4	0.6	3.0	2.6	0.4	2.2
3. 08.(수)	7.5	6.2	1.3	12.0	10.5	1.5	3.0	2.7	0.3	2.2
3. 09.(목)	7.0	6.5	0.5	12.0	10.8	1.2	2.0	2.9	-0.9	2.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품목별 가격동향 및 전망 (2017. 02. 21.~ 02. 27.)

□ 배추

- 동향 : 시장출하 꾸준하나, 상품성 양호하여 10kg당 가격은 전주 9,109원에서 9,339원으로 소폭 상승
- 전망 : 개학 등을 앞두고 수요 증가하여 강보합세 전망

□ 무

- 동향 : 산지 기상여건 호전으로 출하량 증가 및 소비부진으로 18kg당 가격은 전주 16,516원에서 15,663원으로 하락
- 전망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약보합세 전망

□ 간마늘

- 동향 : 비축물량 방출에도 저장마늘 재고 부족으로 kg당 가격은 7,350원으로 보합세 유지
- 전망 : 비축물량 판매 등 정부대책 영향으로 보합세 전망

□ 양파

- 동향 : 수입양파 도입이 증가하면서 감모 및 유통비용 증가에도 kg당 가격은 1,322원에서 1,311원으로 하락
- 전망 : 재고물량 출하조절 지속되며 보합세 전망

*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양파 재배면적, 가격동향 및 전망

□ '17년산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0%, 평년대비 11% 감소

- 17년산 재배면적은 17,960ha 내외로 전년보다 10% 감소(조생종 21%, 중만생종 8% 감소)
 - 전년 마늘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가격동향 및 전망

- 저장 및 감모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파 수입량 증가로 가격은 약보합세
- 양파가격

(단위 : 원/kg)

2017년 1월 (넷째주)	2017년 2월 (첫째주)	2017년 2월 (둘째주)	2017년 2월 (셋째주)
1,285	1,380	1,332	1,311

- 저장업체의 출하조절로 현 시세에서 보합세 전망

□ 수급안정대책

- '17년초 수급불안 대비 10천톤 내외 수매비축물량 방출('16. 11월~)
 - 정부비축물량 잔량은 2~3월 수급불안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방출할 계획임
- 2~4월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시 TRQ(저율관세할당) 조기 도입 검토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영광, 완숙토마토 일본 수출 길에 오른다

-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일본 수출시장 개척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로즈피아를 통해 영광 완숙토마토를 일본으로 본격 수출한다고 밝혔다.
- 영광 토마토 재배농가(최범석)는 지난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인 (주)로즈피아와 수출계약을 맺은 후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에 1,000kg을 선적했다.
- 앞으로도 매주 1톤 이상 일본으로 보낼 계획이며, 유리온실 1.2ha에 2월 하순 정식하여 5월 하순부터 생산되는 완숙토마토도 일본으로 수출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은 완숙토마토 일본 수출을 위해 수출농가 ID 등록 및 수출 규격품 생산기술 등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전남의 완숙토마토는 1,074농가가 939ha를 재배, 전국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토마토는 당도 등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 도매시장 및 일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완숙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규격품 생산 및 검역, 농약안전성 등 전문가 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산 신선 배·토마토, 중남미(브라질·페루) 수출 길 열려

- 금년 산부터 배는 브라질로! 신선 토마토는 페루로! 수출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농산물 배와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각각 브라질과 페루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배의 경우, 브라질 측이 '17.2.13일자로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2.20일자로 제정·시행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토마토의 경우, 페루 측이 '17.1.7일자로 『한국산 토마토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이 2.22일자로 제정·시행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이들 품목의 기본 수출요건은 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며, 수출용 재배포장 및 선과장 등록·관리,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및 무감염증명 등이다.
- 농식품부는 금번 배·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2. 2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27)	1주일전 (02/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2,293	↓ 12.2	↓ 24.8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7,800	150,000	158,533	↑ 14.7	↑ 8.5
	고구마(밤)	10kg	26,000	25,600	25,500	27,200	26,573	↓ 4.4	↓ 2.2
	감자(수미)	20kg	35,400	35,600	34,300	31,100	29,860	↑ 13.8	↑ 18.6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000	1,030	1,065	1,003	710	↓ 0.3	↑ 40.8
	양배추	10kg	13,400	12,000	13,600	6,300	6,567	↑ 112.7	↑ 104.1
	오이(다다키계통)	10kg	27,333	29,667	40,083	37,750	39,726	↓ 27.6	↓ 31.2
	애호박	8kg	22,600	22,000	27,650	26,000	27,480	↓ 13.1	↓ 17.8
	건고추(화건)	60kg	560,000	560,000	567,500	780,000	836,667	↓ 28.2	↓ 33.1
	풋고추	10kg	59,600	55,000	76,700	71,400	96,000	↓ 16.5	↓ 37.9
	마늘(깐마늘)	20kg	147,000	147,000	147,000	161,750	112,600	↓ 9.1	↑ 30.6
	양파	20kg	26,600	26,600	26,000	32,200	20,267	↓ 17.4	↑ 31.2
	당근	20kg	46,600	52,000	67,400	25,000	22,893	↑ 86.4	↑ 103.6
	대파	1kg	2,740	2,680	2,510	2,988	1,813	↓ 8.3	↑ 51.1
	파프리카	5kg	32,800	30,200	32,900	31,550	32,663	↑ 4.0	↑ 0.4
	딸기	1kg	8,600	9,800	14,600	12,400	10,430	↓ 30.6	↓ 17.5
	토마토	10kg	34,800	38,200	33,450	30,750	34,363	↑ 13.2	↑ 1.3
	방울토마토	5kg	24,000	21,600	19,750	24,700	23,540	↓ 2.8	↑ 2.0
	수박	1개	19,000	19,200	13,800	16,350	17,163	↑ 16.2	↑ 10.7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8,600	40,000	41,650	36,750	47,578	↑ 5.0
배(신고)		15kg	38,600	40,000	39,650	45,350	44,557	↓ 14.9	↓ 13.4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27)	1주일전 (02/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23,000	529,000	547,333	↓ 1.9	↓ 5.2
	느타리버섯	2kg	10,400	10,800	15,900	9,500	10,610	↑ 9.5	↓ 2.0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10,850	8,850	8,867	↓ 9.6	↓ 9.8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24	7,845	7,646	8,059	6,158	↓ 4.2	↑ 25.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21	2,016	1,918	1,779	1,639	↑ 13.6	↑ 23.3
	닭고기	1kg	5,421	5,447	4,946	5,121	5,574	↑ 5.9	↓ 2.7
	계란(특란)	30개	7,490	7,598	8,880	5,461	5,466	↑ 37.2	↑ 37.0
	우유	1리터	2,529	2,529	2,529	2,546	2,473	↓ 0.7	↑ 2.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2. 2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1년전 대비
큰 소 (600Kg)	암	5,435 천원	5,435 천원	5,769 천원	- 0.0	↓ 5.8
	거세	6,291 "	5,431 "	6,713 "	↑ 15.8	↓ 6.3
송아지 (6~7월)	암	2,535 "	2,535 "	2,693 "	- 0.0	↓ 5.9
	수	3,103 "	3,103 "	3,271 "	- 0.0	↓ 5.1
육우(600Kg)		3,117 "	2,843 "	3,491 "	↑ 9.6	↓ 10.7
젖소수송아지(7일령)		113 "	113 "	165 "	- 0.0	↓ 31.5
돼지(110kg)		383 "	349 "	307 "	↑ 9.7	↑ 24.8
육계(원/kg)		2,104 원	2,077 원	1,745 원	↑ 1.3	↑ 20.6
계란(원/특란10개)		1,686 "	1,687 "	1,357 "	↓ 0.1	↑ 24.2
오리(원/kg)		2,400 "	2,400 "	1,667 "	- 0.0	↑ 44.0

※ - 한우(거세우) : 6,429천원/마리(△138)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103)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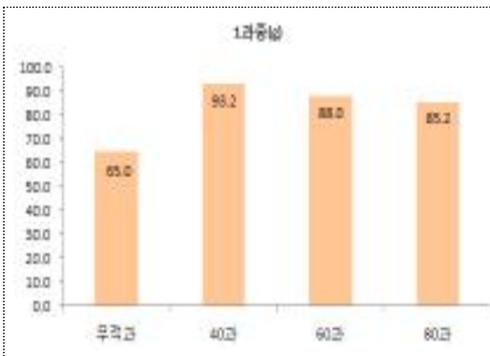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남부지역 패션프루트 무가온 하우스 주당 적정 착과량 조절

□ 개발기술 내용

- 패션프루트 무가온 하우스 재배 시 고품질 상품과 생산을 위한 착과량
 - 남부지역 무가온 하우스 재배 시 적정 착과량은 주당 80과로 조절할 경우 1과중이 높고 상품과 수량이 많아서 소득이 향상됨
- 패션프루트 적과 수준별 1과중 및 10a당 과중별 상품과 분포현황
 - 재배형태 및 시험품종 : 무가온 하우스, 대농 1호(자색계), 삼목 2년생



착과수	1과중(상품과 분포현황)				10a당 상품과 총수
	61~70g	71~80g	81~90g	91g이상	
무적과	5,478	5,312	1,162	-	11,952
40과	332	166	1,328	4,648	6,474
60과	664	1,660	2,324	4,980	9,628
80과	1,328	2,656	1,494	6,972	12,450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남부지역 기후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 과수 작목으로 육성 정보제공
- 아열대 과수 패션프루트 현장기술 지원 및 교육자료로 활용
- 무가온재배기술 패션프루트 매뉴얼 제작에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81g이상 상품과율 증가 : 58% (10 → 68%)
- 무적과 대비 80과로 적과 시 소득 향상 : 1,900천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재욱, 이소미

■ 빵잎과 상백피 이용 건강기능성차 제조

□ 개발기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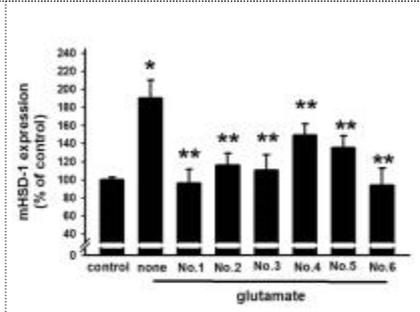
- 제다조건 확립 : 증열 100℃ 50초 → 조유 100℃ 40분 → 비빔 20분 → 증유 70℃ 30분 → 건조 140℃ 50분
- 빵잎과 상백피(90+10%) 혼합 시 기호성 및 생리활성 우수
 - 기호성 : 감칠맛(총아미노산) 10% 증, 떫고 쓴맛(탄닌, 카페인) 5% 감소
 - 생리활성 : 위암과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10~15%), 항당뇨(아카보스 40% 수준) 및 항스트레스 효과(카티솔 20% 억제) 우수
- ※ 아카보스(기존 항당뇨 제품의 혈당강하 주성분), 카티솔(스트레스 호르몬)



【증열과정】



【관능평가】



【cortisol mRNA 발현】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전남 도내 차 제조농가 및 가공업체에 기술 지원 예정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빵잎 활용도 제고 및 소비자 건강 증진과 행복에 기여 기능제품 제공
- 국민 1인당 연 50g 소비 시 2,500톤, 약 1,500~2,000억원 소득 창출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박장현

■ NB와 PB콩의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수취가격 비교

□ 개발기술 내용

- 수취가격은 NB 3,600(69.3%), PB 직거래 3,600(68.2%)로 NB가 높음
- 유통비용은 NB 1,593(30.7%), PB 직거래 1,656(31.8%)로 NB가 낮음



※ NB : 제조업체 브랜드를 뜻함

PB :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뜻함

(단위 : kg당/ 원, %)

항 목	수취가격		유통비용		판매가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NB(도매시장)	3,600	69.3	1,593	30.7	5,193	49.6
PB 직거래	3,600	68.2	1,676	31.8	1,676	50.4

※ 자료출처 : PB 콩(백태) 거래 산지경영체 37호를 대상으로 2014. 1~8월 까지 유통경로별 비용조사 분석결과 임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콩의 NB와 PB의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수취가격 관한 정보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산지경영체의 NB와 PB콩의 유통경로별 가격 경쟁력 분석으로 출하시장 대응능력 제고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황인택

■ 개똥쭉 정유수율 및 생산성이 우수한 수확시기

□ 개발기술 내용

- 개똥쭉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수확시기는 정식 후 꽃이 피기 직전에 수확 후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 정유 추출하는 것이 생체 수량 51%, 정유수율 247% 높아 가장 생산성이 높음

【시비량에 따른 정유생산성】

수확시기	총 생체중 (g/주)	총 건물중 (g/주)	건물율 (%)	생초수량 (kg/10a)	정유수율 (ml/kg)	정유생산성 (L/10a)
6. 30.	584±70	215±27	37.0±0.4	2,433(100%)	0.95(100%)	2.3(100%)
8. 20. (개화기)	879±110	379±23	43.4±3.1	3,665(151%)	3.30(347%)	12.1(526%)
10. 10.	657±110	370±64	57.4±4.1	2,738(113%)	1.70(194%)	4.7(257%)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개똥쭉 재배농가가 정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기 직전에 수확해야함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쭉 정유수율 향상 : 247% (12.1 → 2.3L/10a)
- 소득향상 : 11,896천원/10a 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 맥주의 풍미를 한껏 올려줄 우리쌀 찾았다

- 쌀맥주 가공용 벼 품종 『한가루』 소개... 다양한 활용 기대 -

- 맛과 향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맥주는 보리·밀이 기본 재료이지만, 최근에는 쌀로 만든 맥주도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우리 쌀로 만든 쌀맥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쌀맥주 가공적성과 품질이 우수한 양조용 벼 품종으로 『한가루』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가루』 벼 종자 및 현미】



【쌀맥주】



【시판맥주】

- 『한가루』는 쌀알이 부드러운 연질미로 일반 쌀에 비해 전분 입자가 둥글고 조직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당화할 때 전분이 뭉치지 않고 발효가 잘된다.
- 농촌진흥청이 2016년에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 『한가루』는 『크다』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한』과 분말을 의미하는 『가루』의 합성어이다
- 빵·면·맥주 등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적합해 앞으로 가공용 쌀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품종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쌀맥주 가공기술은 『한가루』 품종 현미 40%와 국산 맥아(엿기름) 60%를 혼합해 상면발효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 쌀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맥아(엿기름)의 일부를 쌀(현미)로 대체한 것으로 보리 맥주 100%에 비해 쓴맛이 적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 쌀맥주 제조는 찌쌀에 분쇄한 엿기름을 혼합해 당화 → 끓임 → 홉(hop) 첨가 → 발효 →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 된다.
-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우리 쌀 소비 확대와 함께 맥주 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협력하면서 쌀맥주 대량생산을 위한 가공공정을 개발해 쌀맥주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김선림 수확후이용과장은 “당화효율이 높은 벼 품종 『한가루』를 이용해 쌀맥주를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의 고품질 쌀맥주를 제공할 수 있고, 국산 쌀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차별화된 쌀맥주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한가루』 및 보리 재배농가의 현장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엉겅퀴 · 흰민들레 알코올성 간 손상과 위염 완화한다

- 건강식품 출시 앞뒤... 산업화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 염증 개선에 효과적임을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



【엉겅퀴】



【흰민들레】

- 예로부터 엉겅퀴와 흰민들레는 한약재 및 한방차, 장아찌 등 식품으로 사용해 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원재료로 등록돼 있을 만큼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소재다.
- 엉겅퀴는 간질환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그중 간 기능을 개선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서양엉겅퀴(밀크 씨슬)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또한 토종 자원인 흰민들레는 일반적으로 간과 위장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은 최근 알코올성 질환 관련 진료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원료를 대체하면서 알코올로 발생하는 간 손상과 위염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토종약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실험을 실시했다.

- 동물실험은 정상군, 알코올성 간 손상 및 위염 대조군, 엉겅퀴 200mg/kg 투여군, 흰민들레 200mg/kg 투여군, 엉겅퀴 100mg/kg + 흰민들레 100mg/kg 복합투여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 5g/kg의 에탄올에 녹인 약물시료를 실험동물에 12시간마다 1회씩 총 3회 경구 투여한 다음 엉겅퀴, 흰민들레 및 복합투여에 의한 알코올성 간 손상과 위염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 그 결과,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투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혈중 간 기능 지표 항목인 GOT와 GPT 수치가 각각 69, 19.6% 개선됨과 동시에 위염이 44.7%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물이 단독투여 용량(200mg/kg)의 1/2 용량(100mg/kg)만으로도 우수한 간기능 개선효과와 함께 위염 증상을 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또한 알코올에 의해 발생하는 간세포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간의 형태학적 변화에 있어서도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투여군에서 간 손상 억제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했으며 관련 기술을 엉겅퀴 재배 영농 조합에 기술 이전했다.
- 영농조합에서는 엉겅퀴를 이용해 알코올성 간 손상 개선용 과립제로 건강식품을 개발해 4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이번 연구성과는 토종약초를 이용해 건강기능성 식·의약 소재 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앞으로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산업화가 확대된다면 수입 의존 품목을 대체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장 건강 돕는 발효 소시지 나왔다

- 유산균 첨가... 알사탕만한 소시지 1조각이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섭취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발효 소시지로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발효 소시지, 발효하는 과정】

【발효 소시지 단면】

- 소시지를 만드는데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뒷다리살)를 이용하는 만큼,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g당 돼지고기 가격 : 삼겹살 2300원, 뒷다리살 680원 정도

- 프로바이오틱스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 있는 균』을 뜻하며 유산균이 주를 이룬다. 유해균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준다.
- 연구진은 염지 처리한 돼지 뒷다리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 KACC 92130)을 스타터로 첨가하고 온도와 습도를 4단계로 조절하며 40여 일간 발효했다.

- 이렇게 만든 발효 소시지는 5g정도만 섭취해도 프로바이오틱스 1일 섭취기준(1일 섭취량 1억~100억 개(CFU))을 충족할 수 있다.
- 무첨가(자연 발효, 상업용 스타터) 소시지에 비해 유산균수는 약 3배 정도 많으면서도 소시지 풍미는 비슷했다.
-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스타터는 풍미 개선 등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닌 일반 미생물을 사용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소시지를 제조할 수 있는 스타터 균과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고급 육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소규모 육가공 농가(영농법인) 등에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함준상 농업연구관은 “발효유 뿐 아니라 발효 소시지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소시지 생산 기술이 돼지고기 부가가치 증진과 소비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시설재배 문제해충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법 개발

- 정식초기부터 방제 서둘러야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설재배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하고, 작물 정식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작은뿌리파리는 오이·수박과 같은 박과작물은 물론 백합·딸기 등 대부분의 시설재배작물 특히, 양액재배에서 피해가 크다. 이 해충은 어둡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애벌레가 뿌리를 갉아먹어 작물이 시들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게 된다. 온실에서는 겨울철에도 발생하고, 5월과 10월에 발생이 많지만 재배초기부터 관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그동안 작은뿌리파리에 대한 방제법은 주로 합성농약을 이용하였지만,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시설애호박을 대상으로 이 해충의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해 특허출원중이다. 개발기술은 어른벌레가 뿌리 근처에 알을 낳지 못하도록 배지를 흑백필름으로 피복하고, 작물을 정식한 뒤 정식한 구멍에 맞춤형 점착트랩으로 끼워 해충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 결과 단 1회의 처리로 관행대비 230%의 증수는 물론 방제 노동력을 89% 개선하였다. 이 방법은 파프리카·오이·수박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박사는 “딸기 등 다른 시설재배 작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며, 해충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의 악성 노동력 해소,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과수원 지금부터 나무 심으세요

- 봄철 땅이 풀린 직후부터 3월 하순까지 마쳐야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과수원을 신규로 개원할 경우 봄철 땅이 풀린 직후부터 가능한 빨리 나무를 심을수록 생육이 좋다고 밝혔다.
- 또한,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영농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과수농가의 나무심기는 늦어도 3월 하순까지 마쳐야 한다고 했다.
- 나무 심는 방향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동서방향보다 남북방향이 일조에 의한 그늘 정도가 사과 과원은 12%, 배 과원은 11%로 각각 적게 나와 남북방향으로 심기를 권장했다.
- 나무를 심을 경우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하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어 물 10~20ℓ 정도를 준 다음 물이 스며든 뒤에 흙을 추가로 덮어주어야 하며, 흙은 가라앉을 것을 감안하여 지면보다 다소 높게 심어야 한다.
- 심는 거리는 토양의 비옥도, 품종의 나무세력, 나무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토양이 비옥한 점질토와 토양수분이 많은 지역, 나무 세력이 강한 품종일수록 심는 거리를 넓게 하고, 척박한 사질토와 같은 토양에서는 나무 심는 거리를 좁게 해야 한다.
- 나무를 심는 방법은 구덩이를 작게 팔 때는 완숙퇴비만 섞어 심고, 구덩이를 크게 할 경우 깊이 50~60cm, 폭 1m 정도로 가능한 크게 파주고 질소함량이 적은 유기물 등을 섞어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뿌리의 발달을 좋게 해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마늘·양파 밭,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세요

- 서릿발 피해 예방, 웃거름 적기 살포, 물 관리,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인 마늘·양파 재배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품질 좋은 마늘·양파 생산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올해 겨울철 (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15일) 평균 기온은 1.6℃로 평년보다 1.1℃ 높고, 강수량은 93.6mm로 평년보다 17.2mm 많으며, 일조시간도 449.4시간으로 평년보다 23.6시간이 많아 기상 상태는 좋은 편이다.
- 그러나 2월 3주차에 늦추위가 엄습해 평균 기온이 영하 0.5℃로 나타나 평년에 비해 1.8℃ 낮은 기온을 보였다. 때문에 마늘·양파 등 월동작물 관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습기가 많고 날씨가 추울 때는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마늘·양파는 땅을 잘 눌러주고 흙덮기를 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마늘·양파의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나 잎 색에 생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웃거름을 주어야 한다. 이때 웃거름으로 양파밭에는 요소와 염화칼륨(칼리)을 주고, 마늘 밭에 요소와 황산칼륨(칼리)을 주는데 1차 웃거름을 주고 15일 뒤에 2차로 웃거름을 준다.
- 웃거름을 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상과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해야 한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비료를 녹여서 뿌려주면 비료의 손실을 막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봄 가뭄이 계속돼 토양이 건조하면 찬 공기가 토양 속에 있는 뿌리까지 쉽게 들어가 얼어 죽을 수 있으므로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따뜻한 날 일찍 물을 줘 땅 온도를 올라가게 한다.
- 봄비가 많이 올 때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장애가 발생하고 장시간 물속에 담겨있으면 습해를 받아 죽거나 병충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구 정비도 철저히 한다.
- 생육기간 동안에 마늘·양파에 피해를 주는 병으로는 노균병, 잎마름병, 무름병 등이 있으며, 해충으로는 고자리파리, 총채벌레, 마늘뿌리응애, 선충 등이 있다.
- 병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연작(이어짓기)을 한 포장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해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사용 기준에 따라 뿌려야 한다.
- 농촌진흥청 이명숙 기술지원과장은 “마늘·양파는 월동직후 관리에 따라 품질과 수확량이 결정되므로 농가에서는 수시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포장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봄 환절기 시설채소 곰팡이병 주의하세요

- 잿빛곰팡이병·노균병 발생 주의, 시설 내 적절한 온·습도 관리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에 곰팡이병 피해가 우려되므로 봄철 병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르고 일교차가 커져 하우스 내부의 습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토마토잎곰팡이병】



【토마토흰가루병】



【고추흰가루병】

- 봄철 초반에는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등을 주의하고, 봄이 무르익는 중·후반엔 흰가루병, 잎곰팡이병 등에 관심 가져야 한다.
- 잿빛곰팡이병은 3~4월에 고추·토마토·딸기 등의 과채류에서 발생한다. 균은 저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식물체의 잎·줄기·과실 등에 침입한다.
- 특히 과실에 병이 생기면 잿빛곰팡이 포자가 많이 형성돼 과실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 노균병은 3~4월경 바깥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습도가 높은 하우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병든 상추는 잎 표면에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연녹색 병증상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는 하얀 곰팡이 균사와 포자가 많이 만들어져 주변으로 급격히 퍼진다.
- 4월 이후 봄기운이 완연해지면 낮 동안 하우스 내부 온도가 다소 높아진다. 이 시기에 시설토마토 농가는 잎 앞면에 흰색 가루를 뿌린 것처럼 보이는 흰가루병과 잎 뒷면에 회갈색 비로드(벨벳) 형태의 곰팡이가 뺨뺨하게 나타나는 잎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쉽다.
- 시설고추 농가에서도 잎 뒷면에 흰가루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균은 주로 잎을 공격해 특징적인 병증상을 나타냄으로써 광합성을 비롯해 식물체의 생육에 영향을 준다.
- 봄철 시설채소 농가는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곰팡이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염원이 외부에서 유입된다하더라도 온도와 습도 관리로 곰팡이의 식물체 침입과 왕성한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초봄에는 꽃샘추위로 인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보온과 습도에 특별히 신경 쓴다. 중반 이후부터는 환기를 자주해 하우스 내부 환경이 쾌적하도록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 이와 더불어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등록약제를 뿌려 식물체 감염을 방지한다.
- 발병 초기에는 곰팡이 포자들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병든 부위를 따서 없애주거나 약제 방제를 통해 포장 내 전염원의 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3,499원으로 결정했으며, 총 1조 4,9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이 단가는 시도가 확정된 대상면적이 '15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면적인 726천ha보다 2만ha 줄어든 706천ha로 결정됨에 따라 총 직불금 지급예산(1조 4,900억원)과 대상면적 및 표준생산량(63가마/ha)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 면적감소 원인은 벼재배 면적의 자연감소와 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농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은 소득은 '16년산 쌀고정직불금('16. 11월 지급)을 포함하여 80kg당 179,083원이며, 이는 목표가격(188,000원) 대비 95.3% 수준이다.
- 지급대상 인원은 685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1ha당 211만원,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21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15년산 : 106만원)한 금액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정된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3월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쌀 변동직불금 사상 최대

- 전남도, ha당 211만원으로 총 3천 203억... 쌀 목표가의 95% 보장 -

- 전라남도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ha당 211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인 3천 20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1천 551억원)에 비해 1천 652억원(106%)이 늘어난 규모다. 벼를 재배한 전남 11만 4천여 농가에 3월 중 지급된다.
-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 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천 751억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kg당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 8천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 9천 711원으로 확정돼 80kg 가마당 3만 3천 499원으로 ha당 211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쌀 80kg당 농가 수취가격은 17만 9천 83원으로, 목표가(18만 8천원)의 95.3%를 지급받게 됐다.
- 전남의 2016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 1천 751억원을 비롯해 총 4천 954억원이다. 이는 전국(2조 3천 300억원)의 21.3% 규모다.

* 출처 : 전라남도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에 589억 지원

- 전남도, 어린이집부터 고교 학생 28만 7천 명 대상 -

- 전라남도는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2천 623개 학교 28만 7천 명의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589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유기농쌀, 채소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라남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07년부터 전체 학교급식에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지원해오고 있다.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유기농쌀·양파·배 등 주요 45개 품목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계절별·품목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를 90% 수준까지 확대하고, 월별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해 생산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 또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시설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점검을 수시로 할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농약사용 유의하세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견과류 등 우선 적용, 2018년 말 전 농산물로 확대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잘못된 농약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추진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홍보에 나섰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에 사용등록 돼 있거나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것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 PLS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 시는 PLS의 농업인 이해를 돕기 위해 SNS,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 차단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그 목적”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잔류 농약 안정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농가에서는 지역 농협과 농약판매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농약을 등록된 작목에만 사용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돌산갓·남면방풍·거문도해풍쭉과 같은 특용작물 재배 농가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로 영농철 준비

- 50개 오지마을 방문, 소모성 부품 무상 교체로 수리비 부담도 줄여줘 -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김병호 소장)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현장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센터는 3월 3일 진상면 지계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50개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한다.
- 이번 농업기계 현장 순회 수리에서는 농업기계 수리뿐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손볼 수 있도록 농업기계 점검방법 교육과 안전수칙, 응급발생 시 처리 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 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리기, 운반차, 소형 트랙터 등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의 운전과 작동 기능 숙달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2만원 이하 저단가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농가 수리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 김영배 도시농업팀장은 “올 한해도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적극 운영해 오지마을의 나이 많고 기계에 약한 여성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딸기』와 달콤한 썸 타실래요

- 『대숲맑은 담양 딸기』의 달콤한 맛과 향을 전하는 『제2회 담양군과 함께하는 롯데 딸기 축제』가 롯데백화점 23일 명동점을 시작으로 수도권 내 19개 매장에서 3월 2일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 이번 축제에서는 담양의 품격 죽향 딸기(500g 14,000원)와 설향 딸기 (500g 5,900원) 두 종을 만나볼 수 있다.
- 개장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이종기 지부장, 재경담양향우회 이은성 회장과 특히 딸기 생산 및 유통에 몸을 담고 있는 봉산농협 박요진 조합장, 창평농협 정원실 조합장, 봉산딸기공선회의 조길석 회장, 창평새벽이슬공선회 윤일호 회장 등이 참석해 방문 고객들에게 담양 딸기의 재배 과정에 대한 설명과 홍보에 나섰다.
- 축제 기간 동안 딸기 실물화분 전시, 딸기케익 판매, 시식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물론,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가 병행되며 군은 총 3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과수재배 시작은 전정으로부터...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과수 전정기술지원단 운영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매실·감·블루베리·체리 등 주요 과수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수전정기술지원단을 지난 21일부터 3월초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과수 전정기술지원단은 감·블루베리·체리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정교육과 더불어 최근 문제되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및 비배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동계교육 대상 농가, 단체는 병해충방제, 하계전정 시기에도 연속적으로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과수재배기술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정기술습득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이론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6차산업 인증경영체 발굴 본격화

- 맞춤형 현장 컨설팅,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혜택 많아 -

- 고흥군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화(농촌융복합)로 성장 가능한 경영체를 발굴하는 등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고흥군의 6차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14개소로 지난해 전남 시군 단위 최다 인증을 받았다.
- 특히,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유통품평회에서 상품성을 입증 받은 6차산업 우수제품(4개 업체, 25개 품목)이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양LF스퀘어 내 6차산업 안테나숍에 입점하는 등 전남 최다 시군의 면모를 보였다.
- 군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핵심주체로 농촌 융복합 인증 대상을 본격 발굴하고 관련 경영체를 대상으로 △ 6차산업 전문교육 기회 제공 △ 분야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 대형유통업체 판촉전 및 안테나숍 입점 지원 △ 농촌융복합 자금(융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군비 46억원 지원

- 보성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군비를 추가 확보해 벼 경영안정자금 32억원을 포함한 농업분야 7개 사업 46억원을 지원하는 등 잘사는 농촌! 활기찬 보성만들기에 나섰다.
-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확보해 관내 농업인 5,762명에게 '17.1월말 벼 경영안정자금 군비 32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2016년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되었다.
-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구입비를 2016년에는 90%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액 지원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금 10%에 해당하는 3억 9천여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벼육묘용 상토사업비 총 14억원(6,400ha 43만포)을 지급한다.
- 쌀 품질고급화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벼 우량종자대 보급중단가 인상분 8천 3백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비 총 8억원(8,600ha 430톤)을 지급한다.
-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2억원(120대)을 추가 확보했으며, 총 9억 2천만원(400대)를 지원한다.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의 군비를 들여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1억 5천만원, 꿀벌 농가 벌떡이 화분지원 사업으로 8천만원을 확보하고 조기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회복에 나선다.

* 출처 : 보성군

■ 강진군, 딸기 전문 세미나로 명품화 담금질

- 전남 강진군과 딸기육묘연구회가 수준 높은 정보 교환을 통한 『명품 딸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관내 딸기 농업인의 소득 향상 위해 정기 세미나를 갖는다.
- 딸기재배는 모종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 일년내내 영농에 임해야 된다. 또한 악천후, 병해충발생, 노동력 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에 부딪치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낮아지는 등 시기별로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이에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딸기육묘연구회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리하는 『달달이세미나』를 계획해 지난 18일 첫 모임을 가졌다. 휴일에도 아랑곳없이 참석한 38명의 회원들은 세미나 주제인 『딸기 연속수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정보 교환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 세미나는 관내에서 딸기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선도농가들의 재배기법에 대해 발표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이론과 현장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 군은 앞으로 10회가 넘게 진행될 세미나의 중요정보는 SNS를 통해 다른 농업인들과도 공유하고 따로 묶어 연말에 『강진딸기 재배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우량 못자리 상토 공급으로 풍년농사 기원

- 관내 1만 5,500ha, 70만포 못자리 설치 전 공급 완료 -

- 해남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한다.
- 군은 올해 18억 8,000만원(군비 55.5%, 자부담 44.5%)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1만 5,500ha에 70만포의 우량 상토를 공급할 계획이다.
- 우량상토는 직파 및 무논점파재배 등 못자리가 필요 없는 면적을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전체 면적에 100% 공급될 예정으로 못자리 단계부터 병충해에 강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상토원 부족으로 못자리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의 일손을 더는 동시에 상토확보를 위해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1일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선정심의회를 갖고, 읍·면 심의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주)서울바이오, (주)풍농, (주)부농, (주)대동산업, (주)신성미네랄, (주)성화, (주)참그로 등 7개 상토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 특히 지난해 타 시군보다 공급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20리터 한포당 2,700원(군비 1,500원, 자담 1,200원), 40리터의 경우 5,100원(군비 3,000원, 자담 2,100원)까지 낮추어 공급할 계획이다.
- 상토는 농가로부터 일반상토 및 친환경상토, 매트상토를 신청 받아 못자리 설치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인삼쌈채』 장성 대표 특산물로 키우자

- 잎·줄기·뿌리까지 통째 먹는 장성 인삼쌈채, 농가 새 소득작목으로 급부상 -

- 장성군은 최근 유두석 군수가 황룡면 와룡리에 있는 인삼 쌈채 재배 농장(김지성 대표)을 찾아 농업인 20여명과 함께 장성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 쌈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인삼쌈채 재배시설 내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인삼쌈채를 재배하는 농가 대부분이 참석해 군수와의 대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인삼쌈채 산업의 저변 확대와 육성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 인삼쌈채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임선호 농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산물로, 상추아파트 시스템을 접목해 뿌리와 잎·줄기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신개념 웰빙 채소이다. 특히 2015년에는 세계 농업기술시상식에서 기술개발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장성군은 인삼쌈채 생산 면적 확대를 위해 특허기술을 주변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국 대형마트와 고급 음식점에 납품해 고소득 작물로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 이날 영농현장에 간담회에 참석한 인삼쌈채 공선회(대표 윤창호) 회원들은 인삼쌈채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는 장성군 대표 음식으로 개발과 수출이 가장 필요하므로 군에 지원방향도 이에 맞춰줄 것을 건의했다.

* 출처 : 장성군

진도군, 쌀 적정생산을 위한 타 작물 재배 추진

- 진도군이 쌀 수급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한다.
-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와 기관 등이 모여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타 작물 재배사업을 위한 대책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 이날 대책 회의에서 쌀 적정 생산으로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기존 벼농사 의존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 군은 작년에 6,100ha 재배된 벼 면적을 올해 5,834ha로 줄이는 대신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타 작물 대체 품목은 콩·메밀·기장·사료작물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이다.
- 특히 진도군은 군 소유 간척지 임대 농업인이 임대 간척지에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을 심을 경우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절감도 추진한다.
- 군은 올해 타 작물 재배목표를 130ha로 정하고 각종 농업 보조사업 지원 시 논 타 작물재배 농업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한편 진도군은 농업경영인회, 쌀 전업농, 들녘별경영체 등 생산자 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출처 : 진도군

8. 해외 농업정보

◆ 캐나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 미국의 반 자유무역 움직임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최근 200여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던 4,800만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임. 캐나다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과 2010년 수입 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식품부문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유제품과 낙농품은 관세면제품목에서 제외 되었지만, 과일·채소·시리얼 등 다양한 식품군이 관세 면제에 포함되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서 이미 일부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나, 200여 종류의 식품 중 57%는 관세적용대상으로 평균 신고금액의 5%의 관세가 부과되어 왔음
- 캐나다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였음. 이는 캐나다 정부에서 면제하는 관세만큼 기업의 가용자본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특히 순이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환영하고 있음. 또한 관세 철폐로 종종 발생하는 흥작으로 인한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쉽게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캐나다 재무부 장관 또한 국제 식품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캐나다의 농식품산업 또한 자유무역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관세철폐 대상 품목으로는 과일·채소·시리얼·곡물·향신료·식용유·초콜릿 등이 포함되지만 유제품과 낙농품은 제외되었음
- 일부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무관세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캐나다 업체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캐나다의 식품업체들은 이미 잘 갖춰진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이 캐나다의 식품안전 및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식품가공업체들은 가능한 캐나다산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 식품업계는 약 3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캐나다 경제의 큰 기둥 중 하나로 식품업계는 관세철폐 및 완화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미국의 반 자유무역 움직임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최근 200여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던 4,800만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임. 유제품과 낙농품은 관세면제 품목에서 제외되었지만, 과일·채소·시리얼 등 다양한 식품군이 관세 면제에 포함되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아프리카 농촌 개발 모델로 확대

- KAFACI 회원 에티오피아 등 6나라 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

- 농촌진흥청(정황근 청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이하 KAFACI) 회원 6나라의 농업기술 보급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 국제협력센터(ITTC)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회의는 1단계 KAFACI 아프리카 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사업(2013년 10월~2016년 9월)에 참여한 14나라 중 성과가 우수한 6나라를 선발해 추진하는 2단계 사업(2016년 11월~2018년 12월)의 첫 공식행사이다.
- * 참여나라 : 6나라(에티오피아·가봉·가나·말라위·세네갈·짐바브웨)
- 기획회의에서는 나라별 농업기술 보급체계 1단계 사업성과와 2단계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벼 개발 협력 사업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 아울러 전라북도농업기술원·군산시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지도기관과 농촌지도사업 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농업기술보급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 앞으로 KAFACI 아프리카 농업기술 보급체계 2단계 구축 사업은 우수종자 생산기술 및 종자 보급체계 개선, 농업기술 보급체계 확대 적용을 위한 영농기술자료 발간 등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 보급체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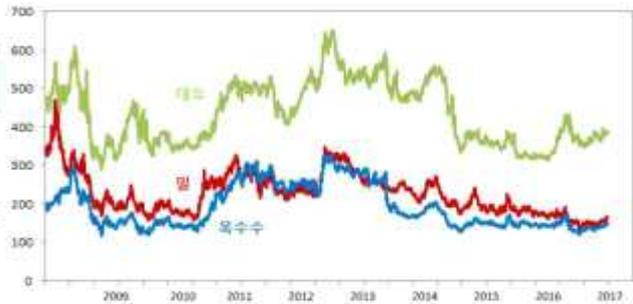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2. 27.(시카고 선물거래소)

예상보다 저조한 수출 판매량에 따라 옥수수 선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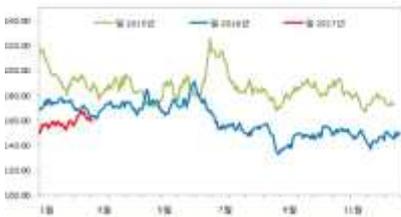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7.2.24)	전일대비	전일평균 ('17.1)	2016 평균
밀	158.44	▼1.5%	156	160
옥수수	143.30	▼0.4%	142	141
대두	372.35	▲0.2%	380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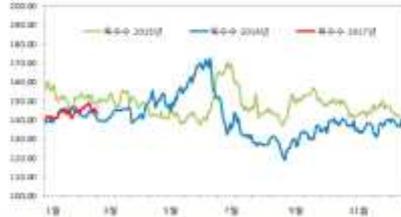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일물(밀, 옥수수, 대두: 3월분) 결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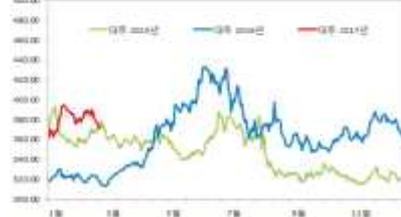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풍부한 국제 공급여건이 지속되며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수출량은 시장을 지지하며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USDA는 연례 전망에서 2017/18 밀 생산량을 전년 대비 20% 감소한 1,837십억 부셸로 전망하였음. 프랑스 농업회사인 FranceAgriMer는 2월 20일 기준 프랑스 연질밀의 93%에 대해 Good/Excellent 등급으로 판정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주간 수출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음. 그러나 판매세 유입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임. USDA는 주간 수출 보고에서 구곡 옥수수 743,100톤, 신곡 옥수수 264,600톤의 수출을 보고하였으며 모두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임.

대두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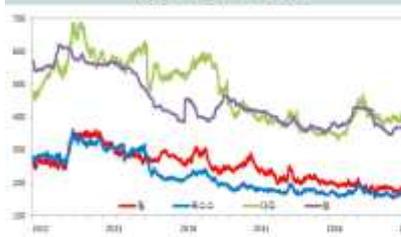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남미 수확 전망 개선 및 미국의 곡종 면적 증가 전망과 관련하여 5세션 연속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bargain buying으로 인해 전일 대비 소폭 상승 마감하였음. 대두박 선물 가격은 대두의 상승세에 동조하며 소폭 상승하였으며, 대두유 선물 가격 또한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의 상승세에 지지를 받으며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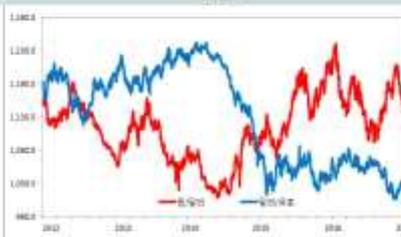
관련동향

- SRW 밀 베이스는 대입세 둔화로 인해 약세를 보였으며, 대두 베이스 또한 계절적 수요 둔화로 압력을 받음.
- 24일 국제유가는 미 원유 시추기수 증가, 미 공급량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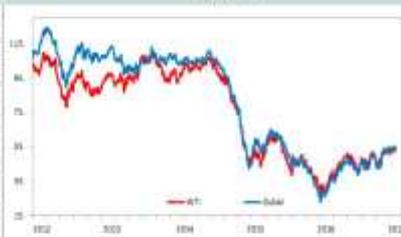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9	▼1.0%	환율	원/달러	1,138.8	▼0.2%
	옥수수	167	▼1.2%		달러/유로	1.0583	▲0.3%
	대두	393	▼1.3%	국제유가	WTI	53.99	▼0.8%
	쌀	361	-		Dubai	54.70	▼0.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주 2) 기준일은 '17.02.23(수출가격), '17.02.24(환율), '17.02.2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맛좋은 우리 딸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 2월 20일~3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응모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을 통해 새로 개발한 딸기 품종 이름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다.
- 그동안 딸기 품종 이름은 육종가가 품종 특성을 반영해 직접 지었으나 이번엔 국민들이 우리 품종에 관심을 갖고 친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공개 모집으로 진행한다.
- 새롭게 개발한 딸기 품종은 기존에 많이 재배하는 『설향』 품종보다 이른 겨울철에 수확이 가능하며, 당도와 산도가 적절히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 특히, 과실이 단단하면서 커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가능하며 수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해 농가 보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딸기 품종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에 제출하면 된다.
- 고유명사는 제출 할 수 없으며, 품종 이름 길이는 한글 기준 2~4자로 해야 한다.

- 기존에 등록된 딸기 품종 이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통합검색 > 품종 이름』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출해야 한다.
-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모두 2점을 선발하며, 최우수상 1점을 새로운 품종 이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에 대해 각각 30만원,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공고한다.
- 농촌진흥청 조명래 원예작물부장은 “이번 공모전이 새롭게 개발한 딸기 품종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빠른 농가 보급으로 딸기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끌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공모품종】

◆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4월 14일까지 사과·배·단감·뽕은감 4개 품목 농협서 판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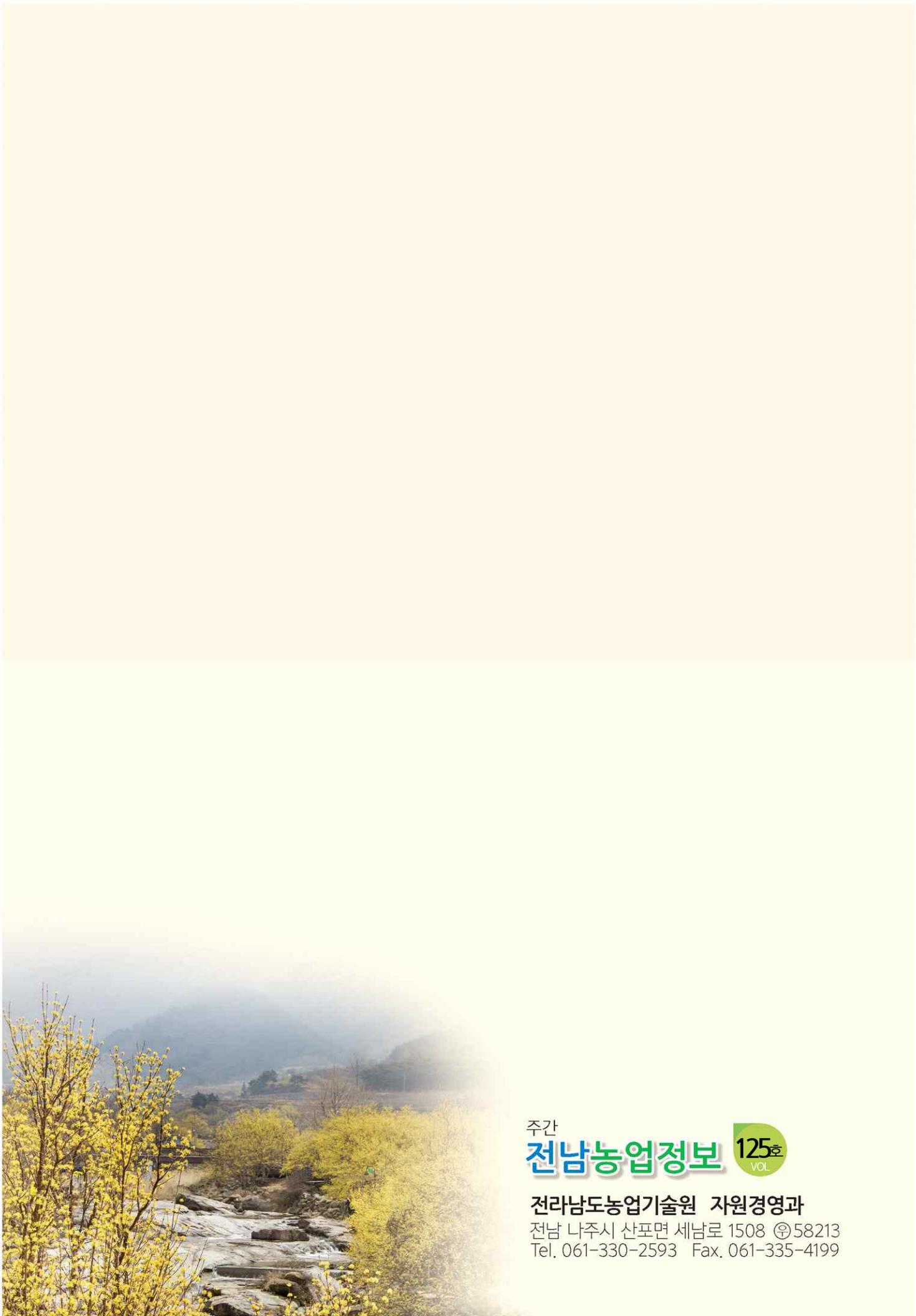
-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4일까지 사과·배·단감·뽕은감 4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으로 80%를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한다.
- 특히 올해는 지난해 폭염 피해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일소 피해 보장 상품은 지난해 적과(알따주기 작업)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 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과수 봄 동상해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오는 3월 24일까지 일찍 가입해야 한다.
- 지난해 전남에서는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에 5천 161 농가가(4천 432ha) 가입해 태풍,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천 616 농가에서 70억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출처 : 전라남도

◆ 개구리가 깨는 경칩(驚蟄), 24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

-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 경칩은, 개구리와 뱀 등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과 벌레들이 깨어나는 시기로 계칩(啓蟄)이라고도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45도에 이르는 때로 동지 이후 74일째 되는 날이며, 양력으로는 3월 5일 무렵이 된다.
-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이 물이 권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알을 건져다 먹었다.
- 이는 봄기운을 가득 담고 첫 입을 연 개구리와 도롱뇽의 알은 『만물의 생기』라고 여겨 신경통과 속병, 요통, 기침에 효험이 좋고, 눈과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믿어 경칩날 이른 아침, 산에 올라서 남들 몰래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에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한다.
- 또한 고로쇠나무(단풍나무·어름냉쿨)를 베어 그 수액(水液)을 마시는데, 위장병이나 속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전남 구례의 송광사나 선암사 일대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유명하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2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